<인터뷰:김유채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자율적 협력체제 구축이 절실한 때”

◆ 92년 한국화학산업의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전망은?

● 80년대 후반 이후 석유화학 부문의 집중투자로 90년부터 합성수지 부문의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 올해를 기점으로 이러한 현상이 최악의 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 석유화학산업은 가동률 저하 및 재고의 누적, 국내외업체의 과당경쟁으로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합성수지 등 일부 석유화학 품목의 「산업합리화」업종 지정 및 「수출추천제」 실시 계획은?

●「산업합리화」 및 「수출추천제」 등 정책은 석유화학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거론, 검토한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언론에 유출,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별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찬성·반대 양쪽으로 팽팽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적 입장을 취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업계가 논란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물의가 빚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점은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업계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실행하지 않겠다는 점입니다. 다만, 업계가 제도적 장치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정책실행을 희망할 때 재론의 여지는 있습니다.

◆ 특히, 수출추천제 등의 경우 업계의 지지를 얻기가 어려울텐데….

● 수출추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체간에 일치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제도는 수출시 협회의 사전확인작업을 거치는 것으로 큰 제재조치는 없으나 「가격하락」의 예방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업계의 분위기가 제도에 따른 불편함을 거론하고,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기간이 필요, 관망할 때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국내기업들이 해외시장을 확보하기까지는 국내업체간 가격경쟁 등 부작용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한해동안 석유화학산업의 진행과정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산업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찬성을 표명하는가 하면, 반대하는 기업도 상당, 논란이 많은데….

● 산업합리화는 정부가 특정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신규투자 제한·기업합병시 세제지원, 자금지원, 공동행위 등 각종 예외조항을 인정하는 특례조치입니다.

일부에서는 산업합리화를 정부가 기업에게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인식하나, 정부는 기업을 보호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특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합리화는 기업들이 희망하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고, 희망한다해도 쉬운 작업이 아니라 실행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실례로 조선분야의 산업합리화시에도 논란이 많았으며, 최근들어 신발업계가 합리화 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결과는 확실치 않습니다. 신발업계의 경우 대부분 중소·영세업체임에도 불구, 진통이 예상되는데, 석유화학 같은 대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업종을 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기에는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더우기 업체가 원하지 않는 합리화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 합리화 지정시 우선 내수·수출 및 가동률 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또 자율조정 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해 합리화 명분도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업계간 자율조정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겠으나, 현 분위기상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적 규제를 가할 시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올해가 중요한 시기가 되겠지요.

◆ 그러나 올 3~4월경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가격이 변동비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PP의 경우 기준가격가의 60%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 91년 하반기부터 PE·PP 등 범용 합성수지제품의 공급과잉 심화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며, 올

봄부터는 경쟁이 더욱 치열, 변동비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 행태는 생산자·소비자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으로, 업체간 자구책 모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업계 자구책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원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 일부에서는 석유화학업체가 이런식으로 나가다간 경쟁력이 약한 1~2개 기업이 도산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현재 파워게임상태로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기업을 지원할 수 없으며, 구제금융 등의 지원책을 강구한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창출 등의 자구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올들어 일부 기업에서는 대북·중국교류 등에 따른 수출증대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 최근 북한에 연불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례로 생활용품용 합성수지 수출수요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중무역협정이 올해 초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국시장을 적극 개척하면 30만~40만톤 이상의 합성수지 수출이 가능, 우리나라 합성수지 총 수출이 지난해 대비 60% 증가한 150만톤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 합성수지 공급과잉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대북 합성수지 반출도 91년 6000톤 규모로 소량에 불과하나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그 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합성수지의 고정공급선 확보를 통한 지속적 수출증대를 위해 중국 및 북한지역에 합성수지가공 공장 건설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 수요창출을 위해 정밀화학제품이나 소재산업에 적극성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다국적기업들이 국내기업의 정밀·소재분야 참여시 덤핑 등을 감행, 참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는데…. R&D 지원 등 정부의 유도방안은?
● 정밀화학분야는 수입이 16억7700만달러, 수출 3억4000만달러로 만년 무역역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역구조개선을 위해 수입량이 많은 품목을 우선 국산화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기술도입이 어려운 품목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데 주력하고, 공장건설시에는 설비투자부문에, 생산단계에 들어선 제품은 국산제품 사용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또, 해외기업의 덤핑시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이 없어 수요자업체의 인식제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수요자업체는 국산화제품의 가격인하 요인의 일정부문이 개발업체에 있음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업·정부·단체 모두 협력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 석유화학업체가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구심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유화학협회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 협회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완전 자유경쟁체제인 반면, 일본은 수평적 협력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석유화학·자동차산업 등이 수직계열화 속에 협회·조합이 중심이 되어 수평적 협력이 적극화되어 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외형적으로는 수평적 협력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 협회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협회의 활성화를 위해 협회가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보고하는 중계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제를 선정해주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끝으로 화학산업계에 한마디 하신다면….
● 업체들이 특화제품·고부가제품의 비중을 높혀나가는 등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 이 어려운 난국을 장기적 관점에서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술개발 분위기 속에 수직계열 기업간 협력체제가 구축된다면 산업발전을 위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1943. 1. 1 출생
67 서울대 기계공학과 졸업

78 상공부 산업기계과 과장
85 특허청 항고심판관 · 심사2국장
88 상공부 기계공업국장
91 상공부 기초공업국장

<화학저널 1992/1/15>